지스트신문

발행인 : 문 승 현
주 간 : 이 용 주
부주간 : 장 진 호
편집장 : 백 승 혁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제 2 호 | www.gistnews.co.kr |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삽화 = 이성주

원내망 통한 네이버, 구글 메일 사용 불가능해진다

정부지침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원내 망에서 네이버, 구글 등 상용메일 접속이 차단된다.

7월 1일에는 구글의 지메일(Gmail),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만 차단된다. 하지만 이후 야후, 네이트 등 상용메일 접속도 같이 차단될 전망이다. 다만 우리 원 메일시스템을 이용해 상용메일을 송 · 수신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용메일 접속차단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측은 상용메일 접속 차단에 관한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가상사설망 서비스(VPN) 등을 통해 상용메일을 이용하다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조치할 예정이다.

상용메일 접속차단 논의는 지난 2014년 상용메일 사용으로 인해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일부 내부도면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내로 연구망과 사설망 모두 상용메일 접속을 차단하라는 공문을 소관 공공기관에 보냈다. 지스트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기에 카이스트 등과 더불어 상용메일 접속 차단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학생기숙사에서 상용메일에 접속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숙사의 인터넷망 구축을 사설 통신사에게 맡기면 광주과학기술원 전산망이 아닌 '통신사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사항과 관계없이 기숙사에서 상용메일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커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상용메일 사용에 익숙한 일부 구성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학생은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끝내 마련하지 못해서 무턱대고 상용메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시스템은 유지하면서도 상용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했다면 이런 처리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높은 보안성으로 인한 속도저하 등의 불편도 예상된다.

김강욱 학술정보처장은 "활동로그 기록을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 불법으로 생각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원내 구성원이 조금 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대 정보운영팀장은 "이메일 암호를 잘 관리해줬으면 한다. 소홀히 관리했다가 스팸메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스팸메일을 받은 곳에서 원의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구성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원내 구성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당부했다.

홍현준 기자 myblue610@gist.ac.kr

지면안내

선생님이 된 학생들, 지역과 교감하는 지스트 5면
5월 18일, 36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픔 6면
인공지능,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7면

보 도

기숙사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단속

단속 기간 내 적발 시 영구 퇴사
대학기숙사 거주자 불시 점검 가능
현장 적발 어려움 해결은 아직

5월 14일(토)부터 20일(금)에 걸쳐 지스트 대학기숙사 거주자를 대상으로 흡연 집중단속 기간이 시행된다.

하우스자치회(이하 '하우스')는 지난 9일 흡연 집중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흡연 집중단속 기간에 대학생활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대학생활관수칙에 의거 대학생활관에서 영구퇴사 처리된다. 대학생활관에서 정해진 금연구역은 건물 내부와 10m 이내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는 집중단속 기간에 한해 징계 수위를 기존의 벌점 20점 부과에서 영구퇴사로 높였다. 흡연자 적발 신고자에게는 상점 3점을 부여한다. 동시에 규칙을 잘 모르는 거주자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우스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흡연 문제를 현재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흡연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대학생활관 내·외부의 흡연 및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대학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최서영(12·전기전자) 학생은 "거의 매일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라고 말했다. 이수진(14·환경) 학생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플 정도였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방에 돌아오니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에서도 냄새가 났다"라고 말했다.

석민희 총하우스장(14·재료)은 흡연 문제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접수된 원인으로 '생활수칙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던 기존의 거주자들과 이번 학기에 새로 입소해 하우스 생활수칙을 잘 알지 못한 대학원생과 외부인의 거주 증가'를 꼽았다.

이에 하우스는 최근 대학원생들과 외부인에게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교학팀에 연락을 취해 대학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단속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대학생활관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하우스를 통해 관리·운영되며, 대학생활관수칙 제10조 9항에 따르면 하우스는 대학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를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하우스는 대학생으로만 구성돼 있고, 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금까지 대학원생에게는 소극적인 징계로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총하우스장은 "의심이 가는 방 앞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고 말했다. 하우스는 조만간 신고가 접수된 방 주위의 대학생활관 거주자들의 방을 불시 점검하여 흡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학원생이나 외부인의 방에 불시점검이 가능해졌다고 하나, 흡연 중인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증거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집중단속 기간에도 여전히 어렵다. 이에 대해 총하우스장은 "물론 끝까지 부인하면 하우스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만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은 흡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익명의 학생은 "규칙을 알면서도 흡연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단속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하우스장은 "집중단속 기간의 강화된 징계로 사람들에게 생활관 규칙을 인식시켜 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생 기숙사에도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거주자들이 있다. "대학원 기숙사에서도 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은 종종 들어온다"라고 대학원(1동~8동)기숙사 사감은 말했다. 그러나 주의를 주는 것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대신 대학원 기숙사 자치위원들이 금연구역 위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양지희 기자 zzzwlgml159@gist.ac.kr

'GIST 발전후원회' 공식 출범

지난 달 25일 출범식
지금까지 390명 73억원 기탁

'GIST 발전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GIST 발전후원회'는 4월 25일(월) 오후 6시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전후원회장직에는 김황식 전(前) 국무총리가, 발전후원회 임원으로는 27명의 광주·전남 지역 기업 인사 등이 위촉됐다.

'GIST 발전후원회'에 따르면 지스트는 2015년 QS 세계대학 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자신감과 위상을 구축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재정 지원만으로 지스트가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에 'GIST 발전후원회'는 지스트가 전인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상호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후원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카이스트의 경우 2000년부터 발전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고,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모금 캠페인을 통해 약 700억 원을 기부받아 지난 2015년 관정도서관을 신축해 개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후원회원은 총 390명으로, 모인 기부액은 73억 원 가량이다. 지난 1월에는 ㈜나영산업 고정주 회장(現 후원회 부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해 오룡관 101호가 덕운(德雲) 고정주 강의실로 명명돼 헌정되기도 했다. 발전기금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지원, 복지시설 확충, 장학사업, 도서·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승혁 기자 bsh3681024@gist.ac.kr

기숙사 이사 문제, 관리강화 필요

대학원 윈터스쿨 일정으로 1월부터 임시로 대학기숙사에 거주하던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구 정보통신공학부) 신입생들과 몇몇 대학원생들은 지난 2월 25일 교학팀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당일 내로 모두 원내의 기혼자아파트로 이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때는 이들이 한 주 전 대학기숙사 내의 다른 층으로 한차례 이사한 후였다. 지스트 학사과정 신입생들이 신입생캠프 일정으로 대학기숙사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교학처의 교학팀 관계자는 이사 공지가 급작스럽게 된 이유에 대해, 이들이 일주일 전에 한 차례 이사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원래는 대학원 졸업생들의 대학원기숙사 퇴사가 끝나고 정리되는 3월까지 대학원 입학예정학생들을 대학기숙사에 임시 거주시킬 계획이었다. 개강으로 인해 대학기숙사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사 요청 메일을 받은 46명의 대학원 입학예정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당일(25일)까지로 통보받은 이사 일정을 늘려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 날짜는 2월 28일(일)까지로 연장됐다. 27일(토)과 28일(일)에는 학교 측과 이사 대상 학생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에 트럭이 동원됐다. 하지만 앞서 25일(목)이나 26일(금)에 이사한 학생들은 차량지원 없이 대학기숙사에서 기혼자아파트까지 걸어서 짐을 옮겨야 했다.

당시 기혼자아파트는 도배와 청소는 끝난 상황이었지만, 가구는 배치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교학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최소 한 학기 거주 보장과 2~3주 이내에 가구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사이 ▲일부 대학원 졸업생이 퇴사 기간을 초과해 잔류했던 문제 ▲생활관비 3회 체납자 퇴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 ▲기혼자아파트와 대학원기숙사를 이중으로 사용하던 문제 등을 교학팀이 해결하자 대학원기숙사에 충분한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열흘쯤 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기혼자아파트에서 대학원기숙사로 다시 한 번 이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이사를 두 번 겪은 학생들은 반발했다. 3월 11일에는 간담회가 열려 교학팀장과 교학팀 주거 담당자, 관련 대학원생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학생들은 물질적 보상, 대학원기숙사 8, 9동 입주 우선권, 선 배정된 대학원 신입생들을 포함한 기숙사 전면 재배정 등과 같은 보상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후 교학팀은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이사를 희망한 10여 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생들에게 가구를 제공하고, 최소 한 학기 동안 기혼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혼자아파트에서 가구 없이 생활한 3월 기숙사비 4만 원은 면제됐다.

현재 우리 학교의 대학원기숙사 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원생 1,20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기혼자아파트를 포함하면 1,300명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원 졸업생들은 규정을 어기고 졸업 이후로 기숙사 퇴사를 늦추려 하고, 대학원 신입생들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입주하려 하기에 매년 2월이면 일시적인 기숙사 부족현상을 겪어왔다. 지금까지는 이를 대학기숙사 시설을 통해 해결해왔으나 대학 신입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 방법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는 결국 대학원 신입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교학팀 관계자는 이사 대상자 대부분이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입생인 것과 관련해 "대학원 학생들이 입학에 앞서 1월 중에 기숙사에 입실할 때,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건물에 가까운 대학기숙사에 먼저 배정하였다. 이후, 3월에 신규 입실하는 대학원 입학생들을 우선 챙기느라 이미 입실해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장수 교학처장은 "대학원기숙사의 공실파악과 퇴실점검을 빠르게 진행했으면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이사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불편을 겪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이는 대학원기숙사와 대학기숙사가 분리 운영되면서 오는 의사소통의 한계와 용역업체에서 주관하는 기숙사 배정 관리로 인해 실태 분석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숙사 증실 사업,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숙사 관리 전산화, 입주 및 퇴실 절차 강화 등의 단기 · 장기 대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학생들이 더는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학생은 "새 학기의 급작스러운 이사는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ferror@gist.ac.kr

단 신

암 연관 유전자 발굴하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현주 교수팀은 최근 암 연구에 있어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데이터를 활용해 암과 연관성이 높은 유전변이 영역을 발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본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5월 9일 게재되었다.

2016 「GIST 무한도전 프로젝트」 공모

'GIST연구원(GRI)'는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GIST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팀을 공모하고 있다. 지스트대학 재학생이라면 2~6명의 팀을 구성하여 창의적 작품제작 부문 또는 국제화 역량강화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마감일은 5월 20일(금)이다.

지스트-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강연 개최

지난 5월 4일(수)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열린 「2016 ACC 인문강좌」 네 번째 강좌에서 김희준 석좌교수(기초교육학부)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관하는 'ACC 인문강좌'는 철학 · 과학 · 역사 ·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이 연사가 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모집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맞이해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등을 지원하는 2016년도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을 운영 및 모집한다. 전국 대학교 학생(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전공 무관)을 대상으로 하며 5월 24일(화)까지 신청가능하다.

김채정 기자 cjkim15@gist.ac.kr

학부생들의 여름축제, 2016 체육대회 열려

지난 13일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학부 체육대회가 열렸다. 지스트대학 문화행사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대학기숙사 A동(구관)팀과 B동(신관)팀은 승리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오전에는 야구장 인근에서 소프트볼, 풋살, 여자 발야구에서의 경합이 치러졌다, 오후에는 축구장 인근에서 협동 공 튀기기, 버블싸커, 피구,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농구 등의 경기가 열렸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이 지급됐고 폴라로이드, 물총 · 물풍선, 헤나 등의 부스도 운영됐다. 다만 계속된 추가모집에도 선수로 등록한 학생이 적어 진행 예정이었던 프리스비 경기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취소된 종목은 배드민턴 경기로 대체됐다.

전날 밤 9시에는 전야제가 열려 대학 인근에 숨겨진 경품추첨권을 찾는 보물찾기 행사가 진행됐다. 보물찾기 외에도 판치기, 알까기 등 다양한 NPC 게임 등의 상품으로 추첨권이 주어졌다. 추첨권을 얻은 학생들은 13일 밤 추첨을 통해 자전거 등의 경품을 받았다.

양지희 기자 zzzwlgml159@gist.ac.kr
신승하 기자 tmdgk1996@hanmail.net

체육대회에 참가한 두 팀의 선수들이 풋살 경기에서 공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심층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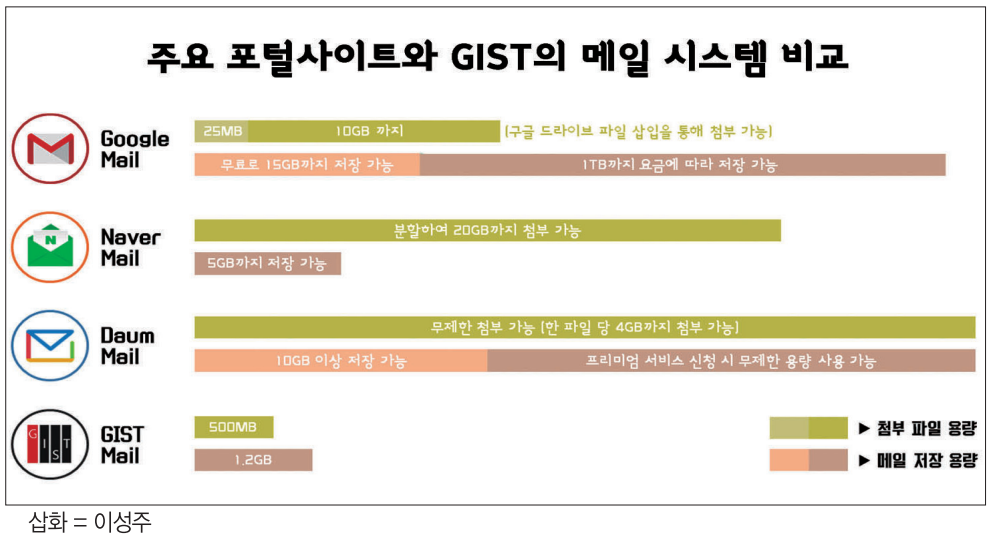
상용메일 접속 차단, 보안이냐, 편리냐

올해 7월 1일부터는 학교 전산망을 통한 네이버, 다음, 구글 메일 서비스 접속이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문에 따른 상용메일 접속 차단 결정. 보안 강화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치로 보이지만 많은 구성원의 걱정과 불만이 구체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전지원 학생(13 · 전기전자)은 "지스트메일이 쓰기 편하고 영구히 쓸 수 있으면 모를까, 아직 불안정하고 지스트를 떠나면 바로 사라질 메일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너무 일방적이다" "막기만 한다고 해결이 될까"라는 의견도 있었다. 상용메일 접속이 차단된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다.

상용메일 차단, 원인은 무엇일까

상용메일 접속이 차단된 것은 한빛원전 도면유출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관련 핵심 문건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전반대그룹이라 밝힌 해커들이 고리 1, 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한빛 원자력발전소 등의 일부 도면과 매뉴얼을 해킹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조사 결과 문건이 유출된 경로로 한수원 직원의 메일 계정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크래킹을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빛원전 사건으로 보안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소속 공공기관에 상용메일 접속 차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 지스트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등 다른 과기원과 함께 상용메일 접속차단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올해 내에 학교 전산망을 통한 상용메일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삽화 = 이성주

	대응 방식
KAIST	연구망, 사설망에 관계없이 상용메일 접속 차단 논의 중
GIST	원내에서 상용메일 접속 차단 조치 시행(7월부터)
DGIST	KAIST와 동일
UNIST	상용메일 접속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지 없음

상용메일 접속 차단에 대한 4개 과학기술원의 대처 현황

꼭 차단하는 게 정답?

우리 원 메일은 상용메일과 비교했을 때 저장용량과 가능한 파일 첨부용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스트 메일은 저장용량이 1.2GB인데 비해 타 상용메일은 기본 5GB에서 메일에 따라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다. 김진우(14 · 전기전) 학생은 "현재 꼭 필요한 메일들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미 용량이 94%나 찼다. 그래서 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메일(Gmail)이다"며 메일 저장용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리 원의 기관메일의 저장용량과 첨부파일 용량이 상용메일에 비해 작다는 지적에 대해 이규대 정보운영팀장은 "다른 기관 이메일과 비교했을 때 우리 원의 기관메일의 저장 용량이 적은 편이 아니다. 원내 구성원들의 필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강욱 학술정보처장은 "상용메일이 기관메일보다 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원 기관메일도 크게 뒤지지 않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스트대학 부총학생회장 유홍제 학생은 "우리 학교가 공공기관인 만큼 보안지침을 따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학교 측의 원내망에서 상용메일을 차단하는 결정에 납득한다"고 말했다. 상용메일 차단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문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항의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지스트대학 학생회는 상용메일 차단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원내에서 상용메일 사용 방법 없나

기숙사에서 상용메일에 접속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숙사의 인터넷망 구축을 KT, SKT, LG 등의 사설 통신사에게 맡기면 된다. 이 경우 기숙사 전산망은 지스트 원내 망이 아닌 별도의 망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도 상용메일을 비롯해 게임 사이트 접속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통신사 전산망 구축에는 큰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규모를 고려해 트래픽이 최소 3GB는 구축돼야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기숙사에만 외부사설망을 설치한다고 해도 트래픽 1GB의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1년에 1억에서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소모된다. 대학원 기숙사를 포함해 원내의 모든 기숙사에 같은 규모의 전산망을 구축할 경우에는 매년 3억 여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지스트 한 해 예산은 고정돼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예산을 지출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상용메일 사용이 필요한지는 원내 구성원의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숙사에 사설 통신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많았다. 전지원(13 · 전기전) 학생은 "통신사 인터넷망 설치가 규정상 가능하다면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숙사 내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이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이 연구공간과 연결되면 안된다"며 학생들의 개인 생활 영위의 중요성을 말했다. 김진우 학생은 "망분리가 시급하다. 사설망을 설치하여 망분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게임차단, 상용메일 접속 차단 등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한다면 학생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용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용메일 이용을 위해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쉽게 상용메일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우 학생은 "무료로 VP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VPN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용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상용메일을 사용해 해킹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VPN을 사용할 경우 더 큰 보안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카이스트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문에 따라 기숙사의 사설망, 연구망과 관계없이 상용메일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에 부딪혀 내부 논의 중이다. 하지만 내부 논의의 결과와는 별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문에 협조해야하기 때문에 상용메일 접속은 예정대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스트는 카이스트와 같이 공문을 전달받아 상용메일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나, 인터넷 이용 불편으로 인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유니스트는 1월경에 상용메일 관련한 공문을 내려 받긴 했으나, 상용메일에 보안 기능을 철저히 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강화 권고 지침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메일 접속과 관련한 제재가 없다.

홍현준 기자 myblue610@gist.ac.kr

선생님이 된 학생들, 지역과 교감하는 지스트

7년동안 아이들을 '졸업'시킨 이충재 씨를 만나다

임동지역아동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평화아파트 단지 옆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한 주택의 2층에 있다. 녹색 페인트를 칠한 계단을 올라가면 문 한 짝이 보인다. 6시 반, 초여름의 어둠이 내리는 시각이다. 키가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아이들 몇 명이 탁자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교 시간과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 사이를 이곳에서 보낸다. 이충재 씨(전기전자, 박사과정)와 본 기자는 센터의 직원 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센터의 직원 분들은 이충재 씨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이충재 씨는 벌써 7년째 임동지역아동센터에서 배움마당의 수학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다. 배움마당 프로그램이 2010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 배움마당의 탄생과 함께한 셈이다. 본교 대외협력처에서 주관하는 배움마당 프로그램은 지스트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 내 아동 센터에 가서 초중고교생에게 수업을 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자가용이 따로 있는 그에게도 임동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길은 가깝지 않았다. 본래 오후 6시 반까지 가야 하는 길이지만 차가 막힐 걱정 때문에 이충재 씨는 오후5시에 일찌감치 출발한다. 가는 길에 이충재 씨는 2년 전만 해도 센터에 중학생들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은 하나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야간자율학습과 학원 등에 시간을 뺏겨 배움마당을 떠나갔다. "전부 초등학생이라서요. 완전히 어린이집 분위기일 텐데…" 중학생 한 명이 남아 같이 공부해왔지만, 취재 당일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했다.

이충재씨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충재 씨는 과자를 챙겼다. 과자가 없으면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한다며 웃었다. 센터에는 아이들이 서너 명 있었지만, 이충재 씨는 한 아이를 유독 반겼다. 예전에 멀리 이사해 센터에 오지 못하게 된 아이가 오랜만에 센터를 방문했다고 한다. 아토피 때문에 대안학교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던 그 아이는 내일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공부방에는 만화책과 아동용 책이 빼곡했다. 방의 중앙에는 책상이 머리를 마주 대고 2줄로 늘어서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아이들이 문제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충재 씨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문제지를 채점했다.

"선생님 안경 벗으니까 완전 이상해요"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농담이 오갔다. 처음 몇 분을 집중하던 아이들은 금세 지루해졌는지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수업이 30분을 넘어가자 한두 명의 아이들이 자리를 떠나 창밖을 구경했다. 이충재 씨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50분이 지나자 그날의 문제를 모두 푼 아이들은 공부방을 나가기 시작했다. 한 시간 째, 마지막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이쯤만 하자는 합의가 오고 가며 그 날의 수업은 끝이 났다. 이충재 씨는 그날은 유독 아이들이 지쳐 보였다고 했다. 센터의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이 학원에 다녀온 직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돌아오는 차에서 이충재 씨를 거쳐 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언제나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피로에 지친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깊이 쏟고 교육할 수 없기에, 그런 아이들은 의지는 있지만, 공부를 어려워한다고 한다.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에는 편부모 가정이 없다며, 이충재 씨는 다행이라고 했다.

지금도 가끔 이충재 씨를 보러 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아이들이 센터에 들러 간혹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충재 씨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아이들이 더 도움이 필요하다며, 수업을 정기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이충재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스트 학생들도 자신이 받은 지식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전남대와 광주교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연합봉사동아리인 희망야학에 많은 지스트 학생들이 가입돼 있으며, 지스트 안에도 교육봉사동아리인 어깨동무가 있다. 학교 측도 인근 초등학교와 아동센터에 과학도서를 기증하는 한편,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충재 씨는 지난 기에는 약 20명 정도만이 배움마당에 참여했는데, 13기 들어서 6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봉사 프로그램은 교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힘든 일이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7년간 가르치는 것은 버거울 수도 있다. 이충재 씨는 "처음 몇 년은 힘들어서, 당장에라도 그만둘까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계속하게 됐어요. 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라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하는 것은 의무감과 호기심이지만, 그 오랜 시간을 뒷받침해준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

서승우 기자 chrd5273@gist.ac.kr

5·18 기획

5월 18일, 36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곳, 광주 트라우마 센터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도청과 충장로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나 이를 진압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밝혀졌고 해당 가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처벌받고 무고하게 피를 흘렸던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에 아파하고 있다. 바로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를 지금까지 가슴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5.18 기념재단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5.18 부상자와 유족 중 55.8%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 중 10.4%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이들을 위한 곳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지난 2012년 설립된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국가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가폭력이란 국가가 주도하거나 묵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서 불법감금, 고문 등이 있다.

"그때의 일이 고장이 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요"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은 평소 5월 18일의 충격을 가슴에 묻은 채 살다가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이들의 치유와 재활을 도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 프로그램, 예술치유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명지원 재활팀장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명지원 재활팀장은 "내담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의 원인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감정은 사실 국가폭력에 의한 PTSD 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담자들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명지원 재활팀장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잠을 편하게 자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듣는다며, "그런 반응을 들을 때면 힘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입었던 피해는 당사자들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신체적 후유증으로도 남아있다. 그들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고문과 폭력으로 인한 통증 및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형도수 물리치료를 진행한다.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물리치료사 유성훈 씨는 "일반적인 외상환자들의 물리치료 방식과 달리,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계속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라며, "내담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정말 그들의 상처 깊이가 느껴집니다"라고 말했다.

2012년 센터를 연 이래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사람은 215명 정도다.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 생활과 일상생활을 번갈아 하셨던 분들이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라고 명지원 팀장은 말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옹호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공동체 치유와 인권의식 함양을 목표로 치유의 인문학,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등을 운영 중이다. 명지원 재활팀장은 "목표는 국가폭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아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매년 5월 17, 18일에는 망월동 5.18 국립묘지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할 방안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명지원 팀장은 "국가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들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채정 기자 cjkim15@gist.ac.kr

전준렬 기자 dynamic98@gist.ac.kr

취재수첩

5월 증후군

'5월 증후군'이란 말이 있다. 5월만 되면 5.18의 피해자와 가족, 광주시민, 심지어 외지인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르면서 불안하고 답답해지며 때로는 매우 강한 분노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 '5월 증후군'은 광주 시민인 나에게도 찾아온 것 같다. 5월의 달력을 보면 18일이라는 날짜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갑자기 망월동의 묘역이 떠오르면서 울컥해지는 것이다. 물론 나는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의 광주시민은 아니다. 하지만 5.18을 직접 경험한 세대인 가족, 친척들, 선생님들 속에서, 그리고 〈화려한 휴가〉, 〈26년〉같은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해온 5.18은 나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한참 '5월 증후군'에 시달릴 무렵,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취재하게 되었다. 그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도시공사 빌딩의 10층에 있는 이곳에 들어서자 마음 한쪽이 답답해졌다. 기자로서 그곳에 방문했기에 생겨난 불안감과 '5월 증후군'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인터뷰 대상자인 명지원 팀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눈을 한곳에 두지 못한 채 이리저리 굴려댔다. 그 와중 눈에 띄는 것은 화분에 심어진 한 그루의 나무였다. 그 나무엔 이파리 모양의 카드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카드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글귀들이 쓰여 있었다. 후에 팀장님께 물어보았더니, 그 나무는 '소망나무'라고, 내담자분들께서 직접 쓰셔서 걸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삐뚤삐뚤한 그 글씨들에는 왠지 내담자들의 마음속의 한이 담겨있는 것 같았다.

센터 내부에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담자분이 만드신 '집 모형'이었다. 집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과 집 주위에 꽁꽁 둘러싸여 있는 울타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팀장님께선, '이 내담자분이 집 모형을 만든 이유는 5.18 때 죽은 자기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무엇으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워놓았고, 빼곡한 울타리를 쳐놓았을까.

약간의 씁쓸함을 머금은 채 이날의 취재는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마냥 씁쓸하지만은 않았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든다. 심지어 "이젠 지겹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하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5.18은 그저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그들을 과거의 그 날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

전준렬 기자 dynamic98@gist.ac.kr

인공지능,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숨겨진 연구소로 초대받은 한 남자. 그곳에서 그는 매력적인 여성로봇을 만난다. '그녀'는 인간과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았고 감정과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남자는 그녀가 로봇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에 빠져들고 그녀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로봇은 인간의 친구나 연인이 될 수 없는,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는 기계일 뿐일까? 영화 〈Ex Machina〉(엑스 마키나)는 위와 같은 상상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을 때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진다. 로봇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로봇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삽화=채유정 기자

4월 29일 GIST 포스트휴먼연구팀이 개최한 학술심포지움에 참여한 교수들, 왼쪽부터 지스트 장진호 교수, 지스트 김건우 교수, 서울대 장병탁 교수, UCLA 데니스 홍 교수, 전남대 박종오 교수, 지스트 황치옥 교수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할 정도로 발전했음을 판단하려면, 인공지능은 우선 '튜링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튜링테스트'란 인공지능과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 나온 대답을 통해, 응답자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분하는 실험이다. 인공지능의 대답과 사람의 대답을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인공지능은 튜링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다. 누가 인공지능인지 알아냈다면 해당 인공지능은 튜링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튜링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월 29일 오후 본교 지스트대학 A동 115호 대형강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GIST 포스트휴먼연구팀이 개최한 학술심포지움에서 서울대 장병탁 교수(바이오지능 연구실)는 "사람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아직은 연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 Machina〉와 같은 인공지능은 아직 먼 미래라는 것이다. 장병탁 교수는 튜링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감정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심사하는 튜링++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과 같은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문제다. 같은 심포지움에서 지스트 김건우 교수(기초교육학부, 법학)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되더라도 넣어준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인공지능을 사람과 유사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행사의 주발표자로 참가한 로봇공학의 세계적 석학 UCLA 데니스 홍 교수(기계항공학과)는 "감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입력에 대해 감정표현을 흉내 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즉,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 낼 뿐 사람과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병탁 교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학습을 통해 입력에 따라 정해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과 '직관'을 갖춘 인공지능을 사람과 명확히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

장병탁 교수는 강연에서 "가격문제나 조작, 느린 속도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들이 가정과 산업체에 보급될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듯이 개인용 로봇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고, 사용자를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IT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애플은 사용자의 물음에 답을 하고, 일정을 짜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개인비서'를 목표로 시리(SIRI)를 운영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작년 2월부터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해 행동양식을 정하는 가정용 로봇 페퍼(Pepper)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사용자의 업무를 돕는 '비서' 역할을 넘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들도 있다. 3월 5일 싱가폴 난양공과대학(NTU)의 탈만(Nadia Thalmann) 교수는 자폐증환자와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치료용 로봇 나딘(Nadine)을 소개했다. 탈만 교수는 환자들이 관심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할 때에 나딘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람이 해왔던 '비서', '상담가' 같은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김건우 교수는 "로봇은 인간을 모방해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있다. 늦느냐 빠르냐의 문제이지 결국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로봇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공지능은 체스나 바둑 같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는 일에만 두각을 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주식투자, 스포츠 기사 작성, 심지어 소설 쓰기 같은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AP통신과 로이터 등의 통신사에선 인공지능이 속보기사와 기업 실적 분석 기사를 쓰고 있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에서 주최하는 SF소설 공모전의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등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곳에도 인공지능이 도전하고 있다. 서울대 장병탁 교수는 "인간의 행동에 '패턴'을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며 "복잡한 창작활동에는 패턴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모든 활동에서 그렇게 쉽게 인간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2016년 현재 소설, 기사, 상담 등의 분야에서 로봇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조언자'와 '창조자'의 역할을 맡아가고 있다. MIT의 레이 커즈와일 교수는 이와 같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간지성을 완전히 분석해 낸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지성을 초월하고 인간뇌가 컴퓨터로 옮겨지는 '특이점'(singualrity)이 올 것이라고 본다. 즉 특이점이 와서 기존의 인간보다 우월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새로운 인류(Post Human)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시대가 온다면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호 기자 soohoda0501@gist.ac.kr

오피니언

독자기고

4월 16일, 그날의 기억

이영민
(지스트대학 물리전공 · 13)

사람들이 노란색 리본을 달고 바닷속으로 안타깝게 가라앉은 이들을 추모한지도 다시 한 달이 지났다. 2년 전 대한민국은 갖가지 감정이 뒤섞여 모든 사회 활동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언론의 오보로 인한 혼란. 아직 꽃피우지 못하고 져버린 이들에 대한 슬픔. 속보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 이기적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한 분노.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정치적 악용으로 인한 갈등. 그렇게 2014년 4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지우지 못할 가슴 아픈 한 장으로 남아버렸다.

그날은 나에게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평일이었음에도 매일 먹는 학생식당이 아닌 학교 밖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이 조금 지나서인지 식당 안에 손님이라곤 친구와 나 둘뿐이었다. 국밥이 나오고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조그만 식당을 가득 채우는 소리라고는 등 뒤에 있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했다.

"어? 저기 무슨 사고 났나 본데?"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배가 한 척 있었다. 자막을 읽던 나는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타고 있다는 말에 놀랐지만, '전원 구조'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내 안도했다.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고가 나도 금방 구조되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나와 친구는 으레 벌어지는 흔한 사건 · 사고라고 여기며 식당을 나섰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학생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게 무슨 속보인가 싶었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번에는 전원 구조가 아닌 승객 480여 명 중 170여 명이 구조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다 구조된 게 아니었나? 그보다 아직 절반도 구조하지 못했으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다. 그날부터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뉴스 속보를 확인했다. 생존자가 몇 명인지, 한 명이라도 더 구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중간고사를 앞둔 시점에도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차가운 물 속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는 잠수사들을 위해 손난로를 보냈지만, 빠른 물살과 궂은 날씨로 인해 구조작업은 더뎌져만 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결국에는 어떤 회의감마저 들었다.

사람들은 무책임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안전 불감증과 각종 안전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 주머니만 배부르면 눈감아주는 정경유착은 척결해야 할 1순위였다.

그리고 어느새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고는 점점 정치적으로 변질되어갔고 사람들은 지겨워하기 시작했다. 이제 일부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하기도 하고 유가족들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생자들의 넋과 그 사건의 본질이다. 어떻게 해야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금이라도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사건 후에 있었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수 김광석의 노래 중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가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언뜻 우습게 여겨지는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나 '태공에게 잡혀 온 참새'와 같은 가사가 주를 이룬다. 그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당일 열렸던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더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는가?

칼 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지스트신문사〉 창간호가 나온 지 어언 한 달이 지났다. 기자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깃든 결실이라 생각한다. 배부대의 신문이 줄어갈수록 나는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스트신문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다.

영국의 존 밀턴(J. Milton)은 자신의 저서 〈이혼의 교의와 질서〉가 의회의 검열과 등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자, 1644년 11월 항의의 표시로 검열과 등록을 거치지 않고 팸플릿 하나를 출판하는데 바로 〈아레오파지티카〉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 이 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밀턴은 여기에 "나에게 자유를 달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추론할 수 있는 자유를, 다른 모든 자유 이상으로 달라"고 적었다. 이는 언론인이라면 언제나 숙지하고 틈만 나면 되새기는 구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 학보사에서 검열을 비롯하여 기자단과 학교의 편집권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학보사들이 탄압을 받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으로 지스트 내 언론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학내 최초의 공식 언론이란 팻말을 달았다. 그리고 첫 결실인 창간호가 나왔다. 감사하게도 아직 편집권을 놓고 학교와 대립하거나, 검열을 당하거나, 백지상태로 신문이 나갈 듯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레오파지티카〉의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처럼 지스트신문이 보도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 유지 및 신문사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외부요인 모니터링 및 대응만이 다가 아니다. 기자단 스스로도 단단히 무장해야한다. 자신이 쓴 기사를 되돌아보는 자세를 갖고 독자들이 갈망하는 콘텐츠를 기사에 담도록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정확한 사실 보도를 중시하고 유흥거리 위주로 지면을 채우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지스트신문사〉 기자증을 다는 순간, 본인이 엄연한 언론인이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질타 부탁드린다. 관심과 격려만큼 기자단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 또한 각종 질타는 기자단이 정신을 가다듬고 신문사가 내리막길로 새지 않도록 하는 완충작용을 해 준다.

〈지스트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유재헌 부편집장 jhyoo@gist.ac.kr

〈지스트신문〉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 , 동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화 : 062-715-5810 이메일 : editor@gist.ac.kr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문승현 주 간 이용주
부주간 장진호 편집장 백승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 신문사
전 화 062-715-5810
이 메 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